

IBK MAGAZINE

2022  
SUMMER

vol. 26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E N D E M I C



Property



Endemic



KPGA, KLPGA

IBK MAGAZIN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발행일 2022년 6월 2일  
발행처 IBK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82  
기획·디자인·제작 이팝 02-514-7567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

### 004 Hot Issue 1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 010 Hot Issue 2

엔데믹 시대의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

### 016 Global Economy

상하이 봉쇄의 영향과 파급 효과

### 022 Inside Golf

KPGA와 KLPGA 투어의 지금

### 026 Tax Guide

건강보험 개편, 이제는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 030 Investment

2022년 3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036 WM Special

자산관리는 전문성으로  
고객관리는 진정성으로  
천안WM센터

### 042 Trip To

여름을 시원하게!  
천혜의 피서지 계곡

### 048 Tea Time

우아한 한 모금에 더위를 내쫓다

### 050 Culture Curation

생동하는 여름을 닮은 문화 산책

### 052 Masterpiece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생트마리드라메르의 바다 풍경



#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난 5년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구입 수요억제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더불어 4가지 부분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writing. 최황수(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지만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금융대책, 둘째는 조세정책, 셋째는 정비사업정책, 넷째는 공급정책이다.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기능 정상화를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4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진행해 보겠다.

### ① 금융대책 평가 및 제언

윤석열 정부는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가지 구분을 2종류(생애 최초 구입은 80%, 나머지는 70%)로 단순화하였다. LTV는 완화 또는 확대하였으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는 그대로 두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총 2억 원이 넘는 대출에 DSR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총 1억 원 초과 대출까지 동일한 규제가 적용 예정이다. LTV는 늘리고 DSR 확대가 없으면 실제 서민들의 대출은 언감생심이다. 여기에 새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이지만 집값이 추가로 들쭉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만을 펼치면 급격한 가계부채의 증가가 우려된다. 아울러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서민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한 절반의 금융규제 완화로 추측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5%의 자금만으로 장기 모기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DSR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소득기준과 함께 신용도 또한 중요한 대출 심사 항목으로 현재 우리의 시스템보다 더 정교한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금융

정책 중 DSR의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세대를 위해 소득만의 기준이 아니라 미래소득에 대한 지표 등을 개발하여 소득활동 기한이 많이 남은 계층에 담보력과 상환가능 능력을 높게 인정해 주는 제도의 도입도 고민해 볼 만하다.

### ② 조세정책 평가 및 제언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 상한액을 1주택자 150%에서 50%로, 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경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작년 95%에서 동결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를 1년간 유예 결정하였다. 양도소득세의 완화는 건설을 통한 공급보다 즉각적인 공급 증가 효과가 있다.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자가 매물을 출회하는 부분도 일종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년 유예를 예고했던 당초 공약과 달리 1년 만에 부동산 매물 출회 효과를 통한 가격 안정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기한을 연장하는 검토도 필요하다. 양도세 증가 자체가 집값 폭등 시기에 임시적으로 운영된 제도이므로 좀 더 확실한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Hot Issue 1

또한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하가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전제로 시행되는 가액상승은 하락기에 대처가 부족하다. 조세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실거래가격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이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등록세의 경우 징벌성으로 부과되고 있는 규제지역 내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세율을 일반과세 기준인 4.6%로 개선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거래절벽 현상을 불러와 가격불안 요인이 조성될 수 있다.

### ③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정책 평가 및 제언

위험 시비가 끊이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이익의 발생시점 산정이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으로 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산정기간 축소를 통한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경감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4가지의 기준 중 가장 가중치가 높은 50% 비중을 차지한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 1호 법안으로 안전진단 완화를 공언하였다. 법률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달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우면 도심 내 시의적절한 신규 공급이 어려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이는 도심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중요한 제도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전진단 완화의 시그널은 즉각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일으켰다. 다만 안전진단 완화는 2023년 상반기에 처리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재건

축예정 단지에 대한 가격상승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폐지하거나 최대 초과이익금 대비 최대 50% 이상 부과하는 환수금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개선도 고려할 만하다.

### ④ 공급정책 평가 및 제언

공급확대를 위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낸다. 공공 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건설 원가 수준에 공급, 분양가 80%를 장기 대출로 제공해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식인 청년원가주택을 30만 가구 공급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또는 국·공유지가 기부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 토지는 저렴하게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역세권 첫 집을 20만 가구 계획했다. 모든 주택 가격 차이는 지역별 토지 가격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좋은 위치에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안전진단 완화와 연계된 공급이다. 다만 부족한 150만 가구는 결국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순증가분은 신규 재건축·재개발 물량에서 기존 조합원 수를 제외한 물량으로 공급의 기여분이 많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의 주택공급을 공약했으나 실제 공급이 대폭 늘어나는 분야는 3기 신도시와 국·공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이다. 1기 신도시 재조정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국가의 제도 개선과 추진 의지 및 민간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에 따라 시의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규모 공급과 환경 파괴가 우려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의욕적이고 시장 친화적이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부동산 정책의 시장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새 정부의 취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부동산 정책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새 정부의 기대감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 가격 안정 정책도 함께 살펴되어야 한다.

는 신도시 집착보다는 직장과 주거가 밀접한 소위 직주근접성 있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좀 더 파격적인 용적을 완화를 통한 공급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부동산 거래량 상승반전의 두 가지 시각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의욕적이고 시장 친화적이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부동산 정책의 시장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새 정부의 취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부동산 정책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새 정부의 기대감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 가격 안정 정책도 함께 살펴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정책의 시의성과 내용적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와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은 국가주도 정책에서 시장기능 회복과 민간참여 확대 추진을 시사한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어려움은 규제완화를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최근의 부동산 거래량이 직전 5개월간의 감소세에서 상승반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 일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로 인해 다시금 매수의 시그널이 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째, 다주택자의 양도세 종과유예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으나 보유 부동산 중 지역, 교통, 학군 등이 우수한 지역은 계속 보유하고 매도하는 부동산은 오히려 그보다 열위에 있는 부동산이므로, 부동산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가지의 시각 중 두 번째 의견

이 그나마 합리적인 의견처럼 보인다. 그동안 계속 회자된 뚝뚝한 한 채, 양극화가 강화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핵심지역에 적극적인 투자도 나쁘지 않다고 강조한다.

### 거시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는 자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인가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치 정설처럼 떠돈다. 세부적인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처럼 시장과 언론은 반응한다.

팩트는 부동산 정책보다 거시적인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은 거시적인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경제학, 경영학 등에서 형성된 이론

과 현상은 금리, 원자재 가격, 물가 등은 자산시장에 역(逆)의 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경제성장률, 소득, 고용 등은 자산시장에 정(定)의 관계를 가진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이 봉쇄되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이 붕괴되고 불가피한 소득하락이 있는데 자산 가격만 폭등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자산 가격과 역의 관계에 있는 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았으며, 소비와 경제활동이 줄어 비자발적인 물가안정과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된 결과이다.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기여했다.

지금은 금리, 물가, 원자재 가격이 모두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격의 하락에 대해 상쇄 가능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리, 물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도 경제성장률, 고용, 소득 증가가 더 크면 자산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징후는 아직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전반적인 시장에 훈풍을 불러오기란 쉽지 않다. 물론 지하철이나 GTX 개통예정지 또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개별지역의 차별화된 가격흐름이 존재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새 정부의 규제완화를 새로운 부동산 매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책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시적 경제 환경의 변화가 유일하고 신뢰성 높은 시그널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보유자는 보유한 지역이나 물건이 시장 전체 평균보다 차별화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매도여부를 판단하고, 매수예정자는 적어도 금리인상 등이 멈추거나 경제 성장률 등이 주목할 만한 상승이 이루어지기까지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확률 높은 자산관리일 것이다.

## SUMMARY

Hot Issue  
1

### 4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는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금융대책, 조세정책, 정비사업 정책, 공급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완화 또는 확대하였으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그대로 두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는 LTV와 DSR을 함께 고려해야 효과가 있다. 둘째,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 상한액을 1주택자 150%에서 50%로, 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경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로 동결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와 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는 1년 유예를 결정하였는데, 유예기한 연장의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재건축 초과이익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도입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 추진을 검토 중이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망설일 것 없이 추진을 제언한다. 넷째, 공급확대를 위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런데 과반수가 넘는 공급물량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으로 진행되어 순증가분의 기여가 어려워 보인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기능 회복과 민간참여 확대 추진을 시사한다. 다만 금리, 물가, 원자재 가격이 모두 급등하고 있는 지금, 최근 부동산 거래량의 상승반전이 거시적 경제 환경 변화에 의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엔데믹 시대의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화되고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 변화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내일을 내다보고자 한다.

writing. 김정식(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 한국경제학회장)

## 지역 블록화 속 큰 정부의 수요 증가

글로벌 경제체제의 변화를 보면 지역의 블록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세계화가 우세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국가 간, 지역 간의 장벽과 규제가 없어지는 추세였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감염병 확산을 규제하는 명목으로 국가와 지역 간 이동의 장벽을 높였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지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유럽 침략 위협도 지역안보와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큰 정부’ 추세도 변화 중의 하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주된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자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큰 정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실업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공일자리 창출과 실업 급여가 중요하게 되었고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규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꼽힌다.

또 다른 변화는 디지털화의 가속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디지털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실물거래는 물론 금융거래와 결제에서도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근무형태를 비롯해 모든 경제관행을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통화 확산으로 국가 간 자본 이동은 물론 국내 금융거래 관행도 크게 변하고 있으며, 고용과 물가 또한 온라인거래와 재택근무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 Endemic

엔데믹이란 풍토병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뜻한다.



## 경기침체 국면의 심화 가능성

엔데믹 시대, 거시경제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있다. 반면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배경으로는 금리인상에 주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그동안 각국은 저금리에 양적완화로 시중 유동성을 크게 늘려 왔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다. 엔데믹 시대에 통화당국은 자산 가격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경기침체를 전망하는 또 다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원유와 원자재,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원가 상승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침체가 심화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또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생산비용을 높여 경기침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와 임금인상 역시 경기침체를 불러온다. 이렇게 보면 엔데믹 시대 경기는 침체 국면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는 물론 디지털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로 고용감소도 예상된다. 디지털화와 같은 기술진보는 일자리를 줄인다. 주택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로 임금이 높아지는 것 또한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배경이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크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은 수요를 늘려서 물가를 높인다. 수요가 늘어나면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필수재인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주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또한 높아진다. 임금인상은 원가를 높여 물가를 상승시키고 결국 경제는 임금-인플레이션 악순환(Wage-Inflation Spiral)에 빠져들게 된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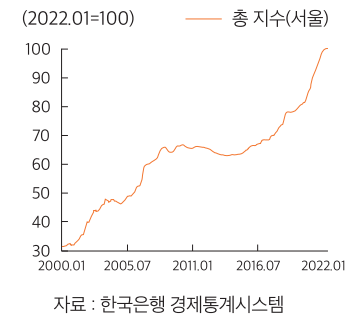


### 주택 가격 상승 원인 파악 필요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큰 폭의 금리인상이 있을 경우 하락이 예상된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 증가로 부동산과 주가 등 자산가격은 크게 올랐다. 통화당국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자산가격 버블은 붕괴될 수 있다.

수도권의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서울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는 서울 주택수요를 줄일 수 없으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그 외에도 임금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인상되는 것 또한 주택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다. 새 정부가 수도권 교통인프라 미흡 등 주택 가격 상승의 올바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인상 폭을 작게 올린다면 주택 가격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지역 주택 가격 추이 (2000년 1월~2022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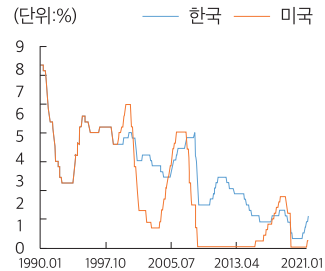


### 부의 불평등과 외환위기의 우려

부의 불평등 심화도 우려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소득 불평등이 문제였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이고 최고소득구간 소득세율을 높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실패로 저금리에 과잉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최근 5년 사이 주택 가격은 2~3배 높아졌다. 소득의 불평등과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금액 규모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사회주의 경향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외환위기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엔데믹 시대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은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된다. 큰 폭의 미국 금리인상 때문이다. 1990년 이후 최근까지 미국 연준이 3%p 이상 금리를 높였던 1997년과 2008년 모두 한국은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엔데믹 시대에도 미국 금리가 3%p 이상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재정적자가 GDP의 6%를 넘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원유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 추이 (1990년 1월~2022년 4월)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쌍둥이 적자로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300원을 넘어설 것이 우려된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유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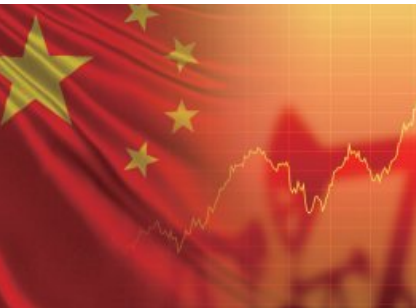
### 엔데믹 충격 극복을 위한 대책

한국경제가 엔데믹의 충격을 극복하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까. 먼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여 인플레이션 기대를 불식시켜야 한다. 한국은행은 경기침체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금리를 높여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질 경우 임금인상 또한 안정될 수 있으며 경제는 임금-인플레이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고금리로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안정화로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다.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급속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신인도가 유지되었던 배경은 한미 통화스왑과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있다. 정책당국은 수출을 독려해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대외신인도를 높여 자본유출을 막고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작년 말 종료된 한미통화스왑을 재개해 외환시장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 중국의 추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추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자리 부족과 기업 투자 부진은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규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의 주력 산업에서 중국으로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5년 임기 내 성과를 강조해 장기간 소요되고 이익집단의 반발이 강한 신산업정책을 등한시해 왔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산업구조에 맞게



## SUMMARY

Hot Issue 2

### 엔데믹 시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감염병 확산 규제를 위해 국가와 지역 간 이동의 장벽은 높아졌다. 동시에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체계의 개편과 지역 안보 구축의 가속화로 엔데믹 시대에는 지역 블록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자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큰 정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엔데믹 시대, 한국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엔데믹 시대로 들어서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지만, 큰 폭의 금리인상에 주목하는 이들은 경기침체를 예상한다. 그동안 각국은 저금리에 양적완화로 시중 유동성을 크게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다. 한국경제가 엔데믹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불식시켜야 한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질 경우 임금인상 또한 안정될 수 있으며 경제는 임금-인플레이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신산업정책을 통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야 하며, 서울 주택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정책 등으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구축된 대학교육과 정부연구소 체제를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 주택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에 터널과 교량으로 좁혀 놓은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출퇴근 시간에 직행열차 운행하는 등 선진국 사례를 통한 개선점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를 보완하고, 1주택자에 대한 무제한의 감면 혜택을 차등시켜야 한다. 과세기준을 현재의 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합산 금액으로 바꿔 조세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1주택자의 보유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서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80% 감면 혜택도 주택 가격과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여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엔데믹 시대에 한국경제는 다양한 충격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MIT대학의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잘못된 제도를 선택할 때 그 나라는 성장할 수 없고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엔데믹 시대에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외환위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새 정부 정책당국의 올바른 제도와 정책 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 China, Shanghai

## 상하이 봉쇄의 영향과 파급 효과

중국은 코로나19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 초기 우한 전 지역을 봉쇄했던 것을 시작으로 금년 들어서도 심천 등 남방 도시에 이어 장강 삼각주의 중심 지역이자 중국 최대 경제중심지인 상하이까지 봉쇄하고 나섰다. 상하이 봉쇄 기간이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경제적 영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writing. 박기순(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 상하이의 경제적 위상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이다. 그 바탕에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2021년 GDP는 4.32조 위안(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 중국 전체 GDP의 3.8%,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7%, 대외무역의 20%(심천 9.5%), FDI(외국인 직접투자)의 14%(심천 6%)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GFCI(국제금융센터지수)에 따르면 상하이는 뉴욕, 런던, 홍콩에 이은 세계 4위의 국제 금융센터이다. 주식, 채권, 외환, 황금, 선물, 화폐, 어음 등 각종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금융시장으로 작년의 거래 총액은 2,500조 위안(달러화 약 390조)이다. 셋째, 글로벌 최대 무역 항구이다. 상하이 항구를 통한 2021년 수출입 총액은 10조 위안이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12년 연속 세계 1위로 중국 전체 물동량의 17%인 4,700만 개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상품 가운데

시계의 70% 이상, 의류의 60%,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약 50%, 자동차, 보석, 포도주 유제품 등의 약 1/3이 상하이항을 통과하고 있다. 넷째, 첨단기술기업이 2만 개가 넘게 포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도시이다. 반도체, 바이오, AI 등 3대 선도산업의 공업생산액이 3,255억 위안(한화 약 6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상하이 봉쇄의 영향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상하이 지역 봉쇄가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상하이를 봉쇄하기 전에 상하이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해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예상을 뒤엎고 중국 최대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마저 봉쇄에 들어간 것이다. 그만큼 정치 어젠다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급년 10월경 중국 공산당은 제 20차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하게 된다. 이미 내부적으로 3연임이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만연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방역 정책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치루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홍콩 대학은 상하이를 2주 봉쇄하면 상하이 당월 GDP의 32%, 당년 GDP의 2.7%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두 달이면 상하이 한 해 GDP의 10% 이상이 감소하게 되며, 제 3차 산업이 73.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부문에 큰 부담이 된다. 또한 상하이와 연결되어 있는 타 도시로의 파급효과 등으로 전국

적인 생산차질과 소비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기를 선행적으로 나타내는 PMI(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중소)기업의 경기인식을 나타내는 차이신 PMI는 제조업(3월 48.1→4월 46.0), 서비스업(3월 42.0→4월 36.2) 모두 전월보다 크게 하락하였으며 2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일부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테슬라, 상하이 폭스바겐, SMIC 등 666개 기업을 1차로 지정한 데 이어, 4월 28일 칭화유니 계열의 쑤광잔루이(UNISOC), 쉐강 상하이, 화웨이, 화다반도체(HDSC), 온세미(미국 자동차용 반도체 제조사), 파나소닉 등 1,188개 기업을 추가해 총 1,854개 기업이 생산활동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일부 대기업들의 숨통을 열어 주기는 했으나 정상화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차이신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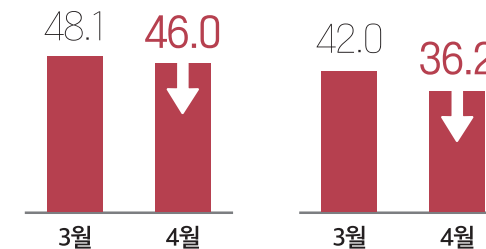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제조업



서비스업





### 금년 중국 성장 목표 5.5% 달성 난망

금년1/4분기 중국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했다. 상하이 봉쇄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2/4분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 성장률은 5%를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년도 성장 목표 5.5%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적어도 6%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성장의 삼두마차인 투자, 소비, 순수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 봉쇄가 확대되면서 소비 증가는 거의 바닥 수준이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다른 나라의 생산활동 재개 등으로 순수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가운데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지양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의 급증은 없을 것이며,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민간부문 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정부

가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녹색 인프라 투자를 진일보 발전시켜 탄소저감, 오염방지, 신에너지, 신기술, 신산업 클러스터 등 중점 영역에 대한 대형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는 선행투자(超前投資)를 강조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2008년 경제위기 때 중국이 투자를 대폭 늘려서 그후 상당 기간 후유증을 앓았던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경기침체의 폭이 클수록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클 수밖에 없으며, 선행투자가 적정 투자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 제조업의 과잉 생산능력에 해당하는 부작용이 인프라 부문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세계 경제는 공급망 재편 가속화 전망

상하이 봉쇄에 따른 공급망 중단이나 붕괴가 나타날 경우 중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 등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커다란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상하이에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지역 소비자들은 테슬라의 차량 인도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고 있으며, 애플은 1분기 양호한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봉쇄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해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자동차 등 한국 자동차 업계는 중국에서 조달하는 ACU(에어백 콘트롤 유닛) 공급을 받지 못해 제네시스, 캐스퍼 등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한국 GM도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지 못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홍색 공급망 탈피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중 간 공급망 분리는 큰 흐름 하에서 이제는 중국의 급변하는 정책 변화와 과도하면서도 빈번한 지역 봉쇄에 따른 신뢰도 하락 등으로 기업들 스스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공급망 관리나 안정화가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상술한 요인 이외에도 EU가 주도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대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망 혼란, 경제적 상호의존의 무기화에 따른 공급망 편중 리스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가격 급등 및 자원의 무기화 등 많은 이슈가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호주, 일본, EU 등 거의 모든 국가가 공급망 관리를 경제안보의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자동차 등 한국자동차 업계는 중국에서 조달하는 ACU(에어백 콘트롤 유닛) 공급을 받지 못해 제네시스, 캐스퍼 등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한국 GM도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지 못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홍색 공급망 탈피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KPGA와 KLPGA 투어의 지금

이제 골프는 친근한 스포츠이자 레저생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관중과 함께하는 프로골프 무대가  
다시 열렸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 관중들의 열기가 뜨겁다.

writing. 안성찬 골프칼럼니스트(골프경제신문 대표이사)



## 골프의 유일한 결점, 재미

비온 뒤 거리 풍경을 살펴보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툭 터진다. 들고 있던 우산을 마치 골프클럽으로 착각한 탓인지 빈 스윙을 한다. 이색적인 도심의 진풍경이다. 거울을 보며 빈손으로 스윙 폼을 잡는 것이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되었다. 골프가 우리 곁으로 발 빠르게 다가온 이유는 무엇일까. 골프가 가진 다양한 속성 탓이다. 영국의 스포츠 칼럼니스트 헨리 롱허스트의 말처럼 '골프의 유일한 결점은 너무 재미있다'는 데 있다. 재미가 없다면 누가 골프를 하겠는가. 내가 볼을 잘 치면 내가 즐겁고, 내가 못 치면 다른 동반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골프 약속을 하면 밤잠을 설치고, 소소한 내기라도 하면 샷 하나에 희비가 오가며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국내 골프 상황은 독특하다. 스크린골프장과 골프 관련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가 넘쳐난다. SBS골프와 JTBC골프 채널이 24시간 골프방송을 한다. 종종 지상파는 물론 수시로 골프방송을 내보내는 케이블 TV가 JTBC골프&스포츠 외에도 3개나 더 있다. 여기에 각종 골프 예능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면서 마치 '블랙홀'처럼 골프마니아를 폭넓게 흡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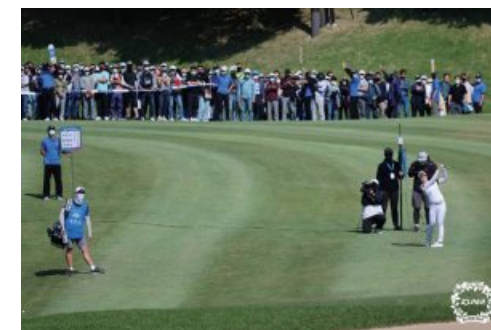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자 골프가 탈출구 역할을 하면서 골퍼를 양산하고 있다. 골프의 중심이 베이비붐 세대(1955~1964)와 X세대(1969~1981)에서 MZ세대(1982~2012)로 이동을 하며 보폭을 더욱 넓혀 가고 있다. MZ세대 중에 2030이 골프판도 변화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골퍼인구는 5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가족나들이' KLPGA투어와 KPGA 코리안투어

한국갤럽이 실시한 '골프에 대한 여론조사 1992~2022'(4월 5~7일)에 따르면 국내 성인 34%는 골프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여성골퍼 증가가 두드러졌다. 남성골퍼는 2013년 29%에서 2022년 42%로 증가한 데 비해, 여성은 8%에서 26%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50대가 52%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1%로 그 뒤를 이었다. 18~29세도 22%나 됐다.

골프 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가 열리는 골프장은 주말 가족나들이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비단 수도권에서 열리는 대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갤러리들이 대회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샷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다 운이 좋으면 다양한 경품이 손에 쥐어지기 때문이다.

세계 프로골프계와 달리 국내는 여자가 남자보



NH투자증권 대회(출처\_KLPGA)



## Inside Golf

다 대회 수 및 상금 규모에서 훨씬 크다. 인기에서도 단연 여자가 앞선다. 한국만이 가진 남다른 상황이다. 1968년 KPGA 창립 이후 남자프로골퍼는 7,000명이고, 1978년 KPGA에서 독립한 여자프로골퍼는 2,8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정규투어에 출전하는 남녀 선수는 각각 150명 안팎이다.

### KLPGA, LPGA스타를 이어갈 재목에 관심이 쏠리다

KLPGA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경기가 열린 5월 15일 경기 용인 수원컨트리클럽 1번 홀 티박스. '디펜딩 챔피언(Defending Champion)' 박민지가 샷을 준비하자 주변을 둘러싼 '구름 갤러리'가 박수와 환호를 쏟아냈다. 박민지의 티샷한 볼이 페어웨이를 향해 직선 방향으로 날아가자 "굿 샷~", "역시 박민지!"란 응원이 터진다. 2022시즌 KLPGA투어는 총 34대회, 총 상금 약 309억 원 규모로 모두 역대 최다다. 총 상금은 지난해보다 40억이 늘어 사상 최초로 300억 원을 돌파했다. KLPGA는 정규투어 외에 2부투어 드림투어 20개, 3부투어 점프투어 16개도 개최하고 있다.

KLPGA투어 인기는 한국이 골프최강국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선수들이 미국에 진출해 그린을 평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중에서 LPGA 스타를 이어갈 재목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만큼 정상급 선수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다. 여자프로들의 인기는 정통적인 스윙을 하는 데다 다양한 플레이와 패션 감각까지 조화를 이뤄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현역 스타는 박민지, 임희정, 장하나, 박현경, 이소미, 유해란, 김지영2 등을 꼽을 수 있고, LPGA투어로 진출한 최혜진과 안나린의 자리를 이채은2, 이가영, 김수지, 이예원, 마다솜 등이 채우고 있다. 올해 여자는 박민지가 지난해 '6승'을 올리며 독주한 것과 달리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KLPGA투어는 고진영을 비롯해 김효주, 유소연, 박성현 등 LPGA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종종 출전하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 KPGA, 기존 대회 수와 상금액의 최고 기록을 세우다

KPGA 코리안투어는 올해 22개 대회로 총 상금 160억 5000만 원+a로 진행된다. 이는 기존 대회 수와 상금액에서 최고 기록이다. 기존 최다 대회 수는 2008년의 20개(총 상금 114억 682만 96원)이었고, 기존 최다 총 상금은 2021년의 156억 원(대회 수 17개)이었다. 현재 총 상금 규모를 협의 중인 대회는 4개다. 신규 대회는 LX 챔피언십 1개, 기존 대회는 코오롱 제64회 한국오픈 포



매경오픈(출처:매경, GS칼텍스)



### 골프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합 3개다. LX 챔피언십과 기존 3개 대회의 상금 규모에 따라 투어 사상 최초로 총 상금 2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 2부투어 선수가 함께 뛰는 스피크스투어도 총 상금 17억 원에 20개 대회가 열린다.

KPGA 코리안투어도 나름대로 골프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KPGA투어 겸 아시안투어 GS칼텍스 매경오픈도 갤러리로 넘쳐났다.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남서울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이 대회에 첫날부터 '구름 관중'이 몰렸다. 허인회와 이태희, 그리고 박성현이 티오프할 때 1번 홀 티박스에만 1000여 명이 몰려들어 티샷 할 때마다 박수갈채와 열렬한 환호성을 보냈다.

첫날 5000여 명의 갤러리가 매경오픈을 찾았다. KPGA를 찾는 갤러리들은 KLPGA투어의 선호도와 조금 다르다. 시원한 장타력이나 기술샷을 잘 하는 선수들을 뒤따르며 응원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박성현, 옥태훈, 박은신, 김민규, 장희민, 김비오, 김재호, 함정우, 김민준, 이형준, 이준석, 김한별, 허인회, 이태희 등이 견고한 기량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에 '훈남' 훈순상과 유럽에서도 잘 알려진 '뉴시곤 스윙어' 최호성도 인기다.

해외골프투어가 풀려도 국내 골프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후는 곳곳에 나타난다. 골프에 입문하기 쉬운 스크린골프장이 여전히 늘어나고,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코스도 건설 중이다. 대기업에서 IT(인공지능)를 접목해 골프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골프 저변 확대에 불을 댕기고 있으며, 여심을 잡는 골퍼패럴 업체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CJ그룹 등 대기업을 비롯해 금융그룹, 중소기업, 화장품, 푸드 기업까지 앞다투어 골프대회 및 골프단을 창설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골프 대중화에 공헌하고 있다.

코오롱FnC의 골프브랜드인 '악'도 올해 브랜드 홍보대사로 가상인간 '수야'를 내세워 라운드에 나선 모습 등 실감나는 스토리를 계속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캐디'를 출시한 브이씨와 협업해 골프장에서 보다 정밀한 거리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골프용품은 비롯해 이동 및 조립식 스크린골프장을 판매하는가 하면 금융사 및 카드사들도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골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앞으로 골프의 전형적인 틀을 깨고 있는 MZ세대 골퍼들이 만드는 한국의 미래 골프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더욱 궁금해진다.

## 건강보험 개편, 이제는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는 납세의 의무이다. 정확한 의미로서의 납세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이지만 세금과 유사한 준조세 성격의 4대보험까지가 국민이 체감하는 납세의 범위가 된다. 매년 4대보험 부담이 올라가고 올해 7월부터는 최종 단계의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2단계 개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정리해 보려 한다.

writing. 원준범 세무사(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 세 가지 유형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의 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이다. 첫 번째로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업을 갖게 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유형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따져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므로 가장 선호하는 가입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은퇴한 경우 부모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으면 취업한 자녀가 직장가입자가 되고 부모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인데,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 2차 개편안에 따른 변화

#### 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이라고 알고 있는 보수월액에 6.99%가 보험료로 부과되며 해당 금액은 사업주와 가입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한다. 추가적으로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2차 개편안에서는 3,400만 원이던 기준금액이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리해야 했던 금액이 이제는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을 피하고 싶을 때도 관리해야 하는 금액기준과 동일해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하는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② 지역가입자

두 번째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금액을 전액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100% 소득금액으로 적용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30%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본다. 하지만 이 30%의 비율도 2022년 7월 이후로는 50%로 올라갈 예정이라 같은 소득이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피부양자

마지막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피부양자이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현행의 조건은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탈락,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탈락,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 시 탈락하게 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더 까다로워진다. 새로운 기준으로는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 초과인 경우 탈락, 재산세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9억 원 초과인 경우 탈락으로 변경된다.



1단계 개편안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보유하는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라 피부양자의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될 때도 비슷하게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은 과세하지 않았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주택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되어 소득요건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소득은 기준금액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위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전략이라고 고려하기 어렵다. 특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금액이 초과되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상당한 재산금액으로 인해 산출되는 보험료가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줄이기 위해 일할 곳을 찾아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료 총 부담액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이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더 큰 경우, 직장가입자 때 부담하는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둘 중 유리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고 피부양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 두는 게 좋다.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요건은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며,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를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날짜를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퇴직한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모의계산해 본 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큰 경우 바로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번거로우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퇴직 전 급여명세의 건강보험료와 비교한 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임의가입은 최대 36개월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 2022

## Financial Market



### 3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은 3/4분기에도 크게 개선된 흐름을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초 주식시장의 하락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3/4분기를 포함한 하반기 역시 선부른 상승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가 하락 압력과 높아진 변동성 위험에 대비해야 할 시기다.

writing.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 투자자들의 시선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이동 → 불안정한 투자환경 지속

지난해와 달리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점차 구체화되는 시기이다. 투자전략과 관련해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둔 보수적인 자세가 더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과 유연함이 필요한 시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현재 금융시장에 직면해 있는 불안 요인은 계속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최근(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3%로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오르지 않은 것을 찾는 게 쉬운 정도로 크게 오른 물가가 가계

소비나 기업의 채산성 등 경제 주체들을 크게 압박하는 상황에, 중앙은행들은 공격적인 긴축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5월 이른바 '빅스텝'으로 불리는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두세 번의 추가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고 6월 1일부터는 자산 축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역시 4월에 이어 5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미 연준의 긴축 속도에 맞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늘어나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을 밀어 올렸던 지난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3분기에 들어서면 물가 관련한 환경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테지만 통화정책은 여전히 강한 긴축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물가정점론에 대한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번 2/4분기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쟁과 관련한 불안으로 3월초 1배럴당 13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 유가는 약 20%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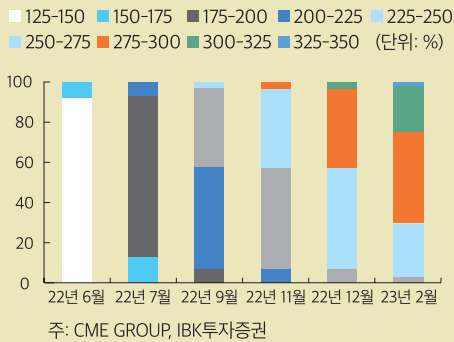


Investment

국 봉쇄로 인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국제컨테이너 운임 등 물류 가격은 지난해 말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의 주된 동인인 공급 압박 요인이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노동시장의 극심한 경색이 점차 해소되며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대규모로 이탈하며 노동 공급이 급감한 것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의 핵심적인 이유였는데, 지난해 말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고 오미크론 변이 이후 일상을 대부분 회복함에 따라 이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물가가 정점을 기록하고 하락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미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이 이를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으며, 여전히 이를 자극할 불안요인도 잔존해 있는 만큼 물가 하락 기율은 상당히 완만할 가능성이 높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 모른다. 이 때문에 물가가 변곡점을 기록한 후에도 상당기간 강한 통화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선물시장에 반영된 미 연준 금리인상 확률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 본격화 가능성 → 정책 전환, 전쟁 불확실성, 중국경제 둔화 등 반영

투자 측면의 또 다른 우려는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경제지표를 보면 생산이나 수출 등 현재 경기 상황을 설명해 주는 동행성 경제지표들 기율은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에 경기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경기를 가능하는 선행성 지표나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는 뚜렷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경기순환 자체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선행경기지수는 8개월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기업체감경기 지표나 소비자기대지수, 한국은행 경제심리지표 등과 같은 체감경기 지표들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에 있다. 경기가 둔화국면으로 접어드는 이유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크게 늘렸던 재정지출의 정상화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 정책 전환 영향이 크다. 경기 및 자산시장 과열로 인해 높아진 비용이 경제주체들의 소비여력이나 투자활동을 잠식하고 생산 활동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은 2/4분기 이후 경제지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며 거래 단절이 확대되는 상황이고 러시아 경제 자체의 부도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 하반기 미국에 이어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를 결행한다면 유럽 경제에 큰 충격은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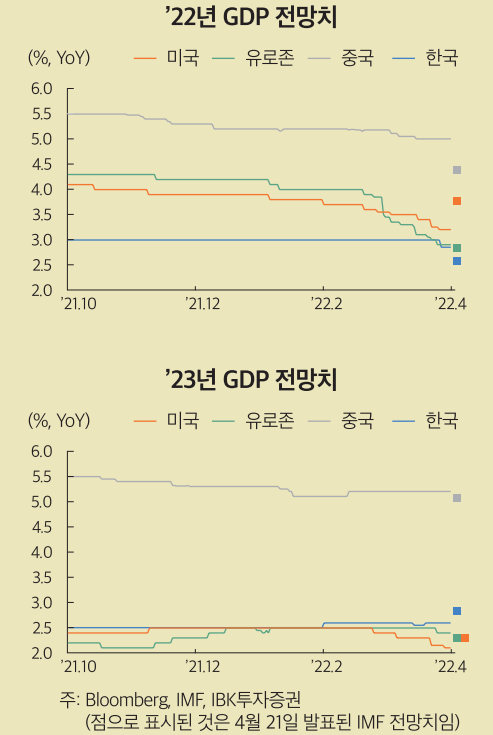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의 영향도 여전히 1분기보

다는 2분기 이후가 더 큰 문제인 불안요인이다. 지난달 발표된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확산에 의한 봉쇄 여파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장률 자체도 시장 기대를 상회했다. 상하이 등 주요 지역 봉쇄가 3월 중순 이후 본격화되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같은 이벤트 효과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4분기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강한 봉쇄정책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들로 장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하향 조정되다가 지정학적 위험이 표면화되고 중국 코로나 봉쇄정책의 부정적 견해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3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5월 이후에는 한 단계 더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표된 IMF의 경제전망치를 비교해보면,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이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낮게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면 시장 컨센서스는 3%에서 최근 2.8%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IMF전망치는 2.5%로 나타나고 있다. 5월 한국은행에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전까지 시장 컨센서스는 2.5% 수준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성장률 전망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제시되었지만 중국 성장률이 4.4%로 낮게 제시된 것을 감안하면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

주요 예측기관들의 향후 경제전망 하향 조정 작업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격화된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은 미국 금리인상 등 통화 정책의 긴축이 시행되어 가면서 실물 경제지표들에 반영될 것이고, 이를 반영하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 갈 것이다.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이익 모멘텀의 둔화

경기 둔화는 결국 기업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목해서 봐야 하는 지표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후행지수의 상대적인 흐름이다. 우리는 동행지수 모멘텀과 후행지수 모멘텀의 차이를 기업이익 모멘텀을 의미하는 지표(Top-down Earning Momentum)로 사용한다.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은 산업생산이나 수출액,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등 기업의 매출과 연관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경기후행지수는 고용이나 소비자물가, 금리 등 비용과 연관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이 두 지표 모멘텀의 차이는 기업이익 모멘텀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실제 이 지표와 기업영업이익 증감률은 연동성

Inves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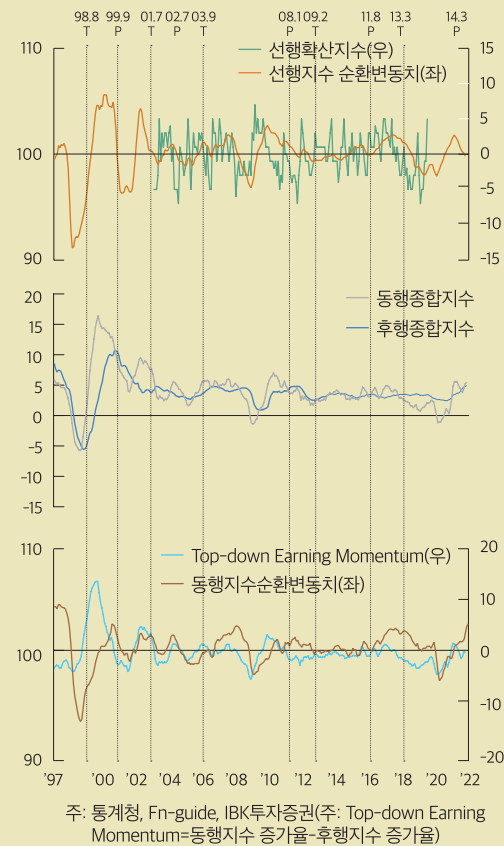
이 매우 높게 움직인다. 최근 우리나라 지표 흐름을 보면, 기업 매출과 연관된 동행지수 변동치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울기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된 모습이지만 비용 부분을 의미하는 후행지수 변동치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기업이익 환경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여러 요인에 의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가계 소비 여력이나 중앙은행 정책 담당자들만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기업 이익 모멘텀도 갉아먹고 있는 환경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실적은 주식시장 부진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2분기 이후에는 점차 실적 둔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행지수와 후행지수 모멘텀을 매크로 이익모멘텀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는 프레임은 미국의 기업실적 방향을 가늠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동행지수는 산업생산이나 기업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행지수는 노동비용, 재고부담율이나 서비스물가 등 비용과 연관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기업이익은 아직 절대적인 수준은 양호하지만 모멘텀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용의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동행지수 반락 폭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후행지수의 반등 폭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금 팽배해 있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더 민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주목할 점은 매크로 이익모멘텀 지표(Top-down Earning Momentum)의 하락이 실적시즌 기업실적 둔화를 확인하거나 설명해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지표는 동행지수 변동과 후행지수 변동으로 구해지지만 경기선행지수

처럼 경기 변곡점을 선행해서 보여 준다. 이유는 기업 부문이 경제를 구성하는 세 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그 자체로 가계 실질 소득을 하락시켜 수요를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기업이익을 매개로 보면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이익 모멘텀의 악화는 기업의 투자여력을 약화시키고 투자 여력의 약화는 고용 및 임금 상승의 여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수요를 위축시키는 고리가 된다. 결국 지금 매크로 이익모멘텀 지표는 비용 측면이 부각되며 악화되고 있지만 조만간 매출 부분의 둔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기종합지수들과 매크로 이익모멘텀 지표 (Top-down Earning Moment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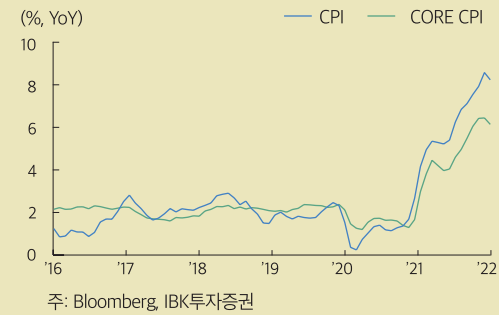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둔 보수적인 자세  
→ 경기둔화 반영 측면에서 주식보다 채권 비중 확대 선호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하반기도 국내외 주식투자환경은 불안정한 약세 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배분 측면에서는 주식을 증가시키는 국면이기보다는 유동성이나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안전자산으로서 채권, 특히 국채에 대한 관심이 높일 필요가 있다. 금년 상반기는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채권 투자의 수익률 역시 상당히 부진한 국면이다. 이는 상반기 금융시장의 초점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이를 반영해 가파르게 진행된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물가상승 폭만큼 금리상승 폭도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시장에서는 물가정점론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분기에 절대적인 상승률은 여전히 높을 테지만 점차 둔화되는 상승률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표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을 물가 우려에서

미국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3월 정점으로 2/4분기 중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



경기 둔화 우려 쪽으로 옮겨 가게 한다. 또한 중앙은행의 시선 역시 경기 둔화 쪽의 비중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긴축의 속도 또는 매파적인 발언의 강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채권시장에서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하나, 현재 채권시장이 하반기와 내년까지 매우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어 절대적인 시장 금리 수준이 높고 정책 당국이나 채권 투자자 모두 금리 수준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금리가 지금보다 완만하지만 낮아질 수 있는 이유로 보인다.

주식 자산 내로 투자전략을 한정해 보면, 이 역시 보수적인 관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투자자들의 성향과 투자 기간별로 투자 유망 종목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상승 기대 폭이 크지 않고 국면 전환이 잦으며 높은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세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 수익을 좇아 테마주를 따라다닐 경우 변동 폭이 확대되고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동학개미가 활성화되었던 지난해의 기대 수익을 잇는다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높은 배당을 주는 지주회사나 금융주들이 높은 변동성 자세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자산관리는 전문성으로 고객관리는 진정성으로

천안WM센터

2021년 연간 경영실적 1등. 지난해 천안WM센터가 그룹 내에서 받은 성적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서도 남다른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단연 천안WM센터의 '효율적인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에 있었다.

writing. 정라희 photograph. 김범기



(왼쪽부터) 김미정 부센터장, 방혜영 센터장, 정지혜 대리, 박주영 팀장, 홍성우 팀장

### 풍부한 경험으로 빈틈없이 고객 수요를 파악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천안시 안에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지역이 있으니, 바로 신불당지구다. 천안 WM센터는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천안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름난 대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중소기업이 터를 잡고 있는 알짜 지역이다. 충청지역 전체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흐름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충청권 내에서 천안WM센터의 역할은 작지 않다.

실제로 천안WM센터를 찾는 고객 다수는 기업 고객이다. 전국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천안아산역이 가까이 있어 기업고객의 접근성이 좋은 편. 천안WM센터 근처에 자리한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CEO들이 사랑방처럼 이곳에 들렀다 가기도 한다. 방혜영 센터장은 “기업고객관리 경험이 풍부한 IBK기업은행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천안WM센터를 소개한다.

“지역 특성상 기업고객의 수요가 높습니다. 중소기업 자산관리 니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천안WM센터가 기업고객관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한 전문적인 컨설팅



공동자산관리 영업점을 이용하는 기업 CEO들과 각 기업 핵심 인력들이 주로 방문하는 까닭에, 천안WM센터의 문턱을 넘는 고객들의 눈높이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천안WM센터는 ‘고객의 자산은 우리 가족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담으로 신뢰를 쌓아 가고 있다. 시장이 급변하면 ‘스팟시황’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황별 밀착 고객관리에 나서는 한편, 자산관리고객을 대상으로 비가격 서비스 및 자산관리클래스(랜선투어) 등 은행에서 제공하는 고객관리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안WM센터에서 고객을 위해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밤잠 편히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이다. 어렵게 자산을 형성한 중소기업 대표자와 법인고객들이 무리한 변동성에 노출되기보다 장기적으로 IBK기업은행과 동행할 수 있도록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자산컨설팅을 진행한다. 물론 투자경험이 많고 높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는 여느 금융기관보다 고도의 투자 상담을 하고 있다. 초저위험 포트폴리오부터 초고위험 포트폴리오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다.

‘고객의 자산은 우리 가족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담으로 신뢰를 쌓아 가고 있다. 시장이 급변하면 상황별 밀착 고객관리에 나서는 한편, 자산관리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고객관리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편안한 분위기 속 일당백 인재들이 함께

천안WM센터는 바쁜 업무에 지친 CEO들이 오가며 들르는 편안한 쉼터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림과 음악이 있는 공간에서 다과를 나누면서 취미도 공유한다. 이 같은 정서적인 교류는 센터를 향한 신뢰로 다시 이어진다.

특히 천안WM센터 구성원들은 팀워크가 좋기로 유명하다. 이곳의 전통 중 하나는 구성원의 단체사진 찍기. 실제로 센터장실 벽면에는 역대 센터장과 구성원들의 단체사진이 모두 걸려 있다. 리더와 구성원의 벽 없는 소통은 센터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다. 방혜영 센터장 역시 구

성원들과 가벼운 티타임을 가지며 직원들의 마음을 살핀다.

천안 토박이로 이른바 ‘천안의 딸’로 통하는 김미정 부센터장의 밀착 고객관리를 비롯해, 자금 운용부 출신의 예리한 시장 전문가 홍성우 팀장, 꼼꼼한 감사역으로 투자 리스크를 해소하는 박주영 팀장,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센스 만점 정지혜 대리의 시너지는 천안WM센터만의 경쟁력. 시장을 깊게 파고드는 전문성과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성으로 일하는 이들이 있기에, 고객들은 천안WM센터를 믿고 찾는다.

## 저희 천안WM센터가 약속합니다

“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 큰 차이를 이룹니다. 2022년 IBK기업은행 슬로건인 ‘금융으로 바꾸는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며, 더 많은 고객님에게 차원이 다른 금융을 선보이는 천안WM센터가 되겠습니다.

”  
방혜영 센터장

“ 자타공인 ‘천안의 딸’로 천안지역 고객들과 오랜 기간 교류해 왔습니다. 천안WM센터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고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식 없는 진심으로, 고객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  
김미정 부센터장



“ 기업고객에게 환율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환딜러와 금융기관 및 대기업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최적의 도움을 전하겠습니다. 자산관리와 관련한 고객님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드리고 싶습니다.

”  
홍성우 팀장



“ 천안WM센터의 팀워크는 남다른니다. 현장과 창구의 ‘환상의 호흡’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고객서비스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감리역으로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금융소비자를 위한 최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  
박주영 팀장



“ IBK기업은행의 다양한 서비스를 두루 챙겨 고객님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동시에, 기존 고객님에게도 한결같은 정성으로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  
정지혜 대리





## 여름을 시원하게! 천혜의 피서지 계곡

우거진 참나무 그늘에 기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싶은 계절이 찾아왔다.  
그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물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싶어 하는 당신에게,  
산천초목이 만든 푸른 피서지를 안내한다.



# 가평 용추계곡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 짜릿하게 더위를 무찌르다

굽이굽이 산으로 둘러싸인 가평에는 여러 계곡 명소가 있는데, 용추계곡은 특히 맑은 물과 빼어난 경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칼봉산에서 발원하는 이 계곡의 주변으로는 9개의 절경이 있어 '용추구곡(龍墜九谷)'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19세기 유학자 유중교 선생이 이곳의 풍광에 반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아홉 굽이의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용추계곡의 '그림 같은 경치'에 넋을 잃는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이 만드는 그늘 아래 계곡물은 쉼 없이 흘러가는데, 반복적으로 흐르는 물줄기에도 무상함보다는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용추계곡이 가진 힘이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사라지는 듯하지만, 진짜 피서를 즐기기에는 물놀이만 한 게 없다. 장담하건대 용추계곡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오싹할 정도의 시원함이 온몸을 감돌 것이다. 계곡만이 주는 짜릿한 '물맛'을 느끼고 싶다면 단연 용추계곡을 추천한다. 단, 취사 및 야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몸도 마음도 가볍게 떠나 보자.



# 단양 사인암

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2길 42

## 명승지에서 누리는 물놀이

충청북도 단양의 경승지 '단양 팔경' 중 하나인 사인암(舍人巖). 마치 바위를 조각하여 차곡차곡 쌓아 둔 것만 같은 이 암벽은, 고려시대 유학자 우탁(禹倬)이 '사인(舍人)'이라는 벼슬에 있을 때 이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즐겼다는 데서 '사인암'이라 불린다. 어디든 자연의 풍요로움이 발에 채이던 그 옛날에도 일부러 찾아왔을 정도였다고 하니 사인암의 멋은 이미 증명된 셈이다. 아래로는 남조천이 흐르는데, 이 물길이 만나는 아홉 굽이의 명승지를 운선구곡(雲仙九曲)이라 한다. 사인암은 단양팔경의 '제4경'이자 운선구곡의 '제7곡'이다. 남조천에서는 여름마다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옥빛 물속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고개를 돌리면 가파른 절벽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는 이곳에서의 물놀이는 그야말로 '구름 속의 신선[雲仙]'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단양군 내에서 관리하고 있어 안전요원이 있고,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 가능하니 시원하고 안전하게 풍류를 즐겨 보는 것은 어떨까.





# 정선 아우라지

위치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5리

## 절경의 너른 품으로 풍덩

아우라지는 '두 갈래 물이 한데 모여 어우러지는 나루'라는 뜻이다. 거친 구절천과 잔잔한 골지천이 만나 '조양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정선 아우라지는 최근 들어 '차박 성지'로 손꼽히고 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수대와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어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데, 특히 여름에는 아우라지에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깊은 산골에 위치해 시내에서도 병풍처럼 서 있는 웅장한 산을 마주할 수 있는 정선. 정선이 품은 자연의 매력은 아우라지에서 풍성하게 터진다. 주변을 두르고 있는 장대한 산세 아래로는 한가로이 하천이 흐르고, 고개를 올라다보면 그 어떤 인공물의 방해 없이 그저 널따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분명 아우라지의 풍경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름 한낮의 더위에 지쳤다면, 아우라지는 어떨까. 시원한 물놀이는 물론 너른 자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 제주 원앙폭포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137

## 수려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휴양

금실 좋은 원앙 한 쌍이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 원앙폭포. 원앙의 사랑이 곳곳을 아름답게 물들였기 때문인지 원앙폭포 주변은 수려한 자연으로 가득하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작은 못은 신비로운 청록색을 띠고,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가 둘러싸고 있어 마치 어느 화백의 작품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마저 드는데 이곳은 실재다. 여기서 수영은 물론 스노클링도 할 수 있다. 한라산에서 내려와 맑은 물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떠나고 그 자리를 청아한 새소리와 청명한 물소리만이 채우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 원앙폭포 아래에서 여름을 충분히 누렸다면 다음 코스로는 산림욕을 추천한다. 돈내코 유원지까지 약 700m의 숲길이나 있는데, 푸른 나무가 우거져 있고 벤치가 마련돼 있어 중간 중간 편히 쉬기에도 좋다. 비록 현재 코로나19로 유원지 야영장은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원앙폭포 주변의 자연만으로도 충분한 휴양이 될 것이다.



## 우아한 한 모금에 더위를 내쫓다

여름이 성큼성큼 걸어오는 듯한 요즘. 급격한 날씨 변화에 몸이 따라 주지 않아 마음까지 지치는 듯하다. 이런 때에 기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를 소개한다. 올여름 당신에게 최고의 보양식이 되어 줄지도 모른다.

writing. 임산하



### 한여름 불면증을 물리치는 대추차



더운 여름철 열대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 때, 대추차만 한 묘약은 없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추는 '천연 수면제'라고도 불리는데, 혈액 순환을 도와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분이 긴장을 풀어 주어 느긋하게 잠에 청할 수 있게 한다. 찌는 듯한 더위에 쉽게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철, 잠이라는 보약을 얻기 위해 대추차의 힘을 빌려 보는 것은 어떨까.

### 무더위를 이기게 하는 뜨거운 인삼차



찬 음식에 마음을 뺏기는 무더운 여름철. 그런데 마음의 소리만 듣다 보면 배가 탈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 했다.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따뜻함을 넘어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인삼차를 마심으로써 몸에 기운을 돌게 하는 것은 어떨까. 땀을 많이 흘려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 인삼차가 구미를 당기게 해 줄지도 모른다. 다만 한방차인 만큼 체질에 맞아야 하므로 혈압이 높은 이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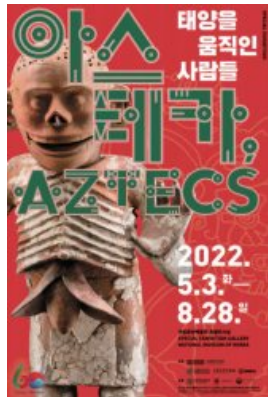
### 피부와 건강을 한 방에 잡는 구기자차



강한 자외선과 심 없이 흐르는 땀에 피부가 예민해지는 한여름, 건강은 물론 피부까지 잡을 수 있는 차가 있다. 바로 구기자차다. 구기자에는 비타민C와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에 기운을 돌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구기자의 폴리페놀이 비타민C와 함께 항산화 기능을 하므로 혈관 속 독소 배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준다. 구기자차 한 모금이라면 온몸의 건강을 단숨에 잡을 수 있다.

## 생동하는 여름을 담은 문화 산책

### 전시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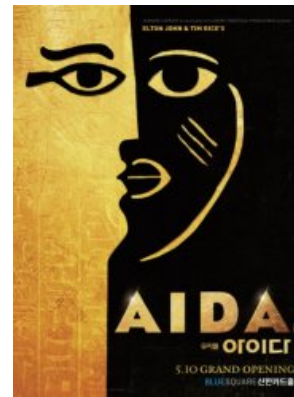


####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마야, 잉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3대 문명으로 꼽히는 아스테카. 우리는 유독 아스테카에 대해 잔혹한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는데, 이 전시는 묻는다. 당신은 아스테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아스테카를 오롯이 긍정하라는 메시지는 아니다. 이제 편견을 벗고 아스테카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 때다. 최근 스페인 정복자의 왜곡으로 아스테카의 부정적 측면이 부풀려졌다는 게 밝혀졌다. 이 전시는 아스테카의 다양한 해석을 받아들여, 그들을 새롭게 바라보자고 말한다.

●  
일정 5월 3일~8월 28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 뮤지컬 MUS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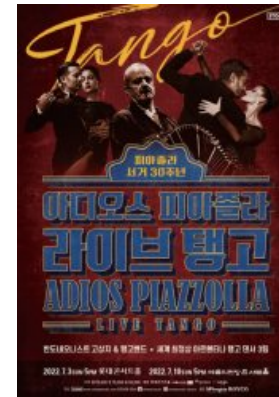


#### <아이다>

2020년 초 당시 <아이다>는 서울에 이어 부산 공연을 끝으로 오리지널 버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부산 공연이 취소되면서 작별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아이다>가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다. 뮤지컬 <라이온 킹>의 엘튼 존과 팀 라이스 콤비의 음악이 있어 매혹적인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아이다>. 토니상 음악상은 물론 무대디자인상 등까지 섭렵한 <아이다>는 앙상블의 화려한 군무까지 볼 수 있어 눈과 귀가 황홀한 공연이 될 것이다.

●  
일정 5월 10일~8월 7일  
장소 블루스퀘어

### 클래식 CLASSIC



####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아스토르 피아졸라 서거 30주년을 맞이해 라이브 탱고 공연이 찾아온다.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와 탱고밴드, 그리고 세계 최정상 아르헨티나 탱고 댄서 3팀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공연으로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Adios Nonino', 'Por una cabeza' 등 첫 음률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피아졸라의 음악 위를 탱고 댄서들이 뜨겁게 누비는 이 공연은 한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것이다. '진짜 탱고'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단연 추천한다.

●  
일정 7월 3일 / 7월 10일  
장소 롯데콘서트홀 / 예술의전당

### 창극 KOREAN TRADITIONAL OPERA



#### <귀토-토끼의 팔란>

작년 6월 초연한 국립창극단의 <귀토-토끼의 팔란>이 부산을 찾아간다. 우리에게 익숙한 수궁가를 재해석한 '귀토'의 핵심 줄거리는 토끼가 겪는 여덟 가지의 다사다난한 일들이다. 토끼는 이 과정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유연하면서도 굳센 면모를 보여 관객들에게 진한 웃음과 감동을 준다. '거북이와 토끼(龜兔)', '살던 땅으로 돌아오다(歸土)'라는 중의적인 제목을 가진 이 창극은 이제 거북이가 아닌 토끼에게 집중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할 것이다.

●  
일정 8월 12일~8월 13일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생트마리 해변에서 고흐가 마주한 지중해의 여름. 고흐는 이곳의 바다를 보며 “변화하는 색상”이라 말했다. 바다는 하나인 것 같지만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서진다. 익숙한 파란색이 아닌 흰색, 노란색, 초록색의 과감한 붓질로 이를 담아낸 고흐. 빛을 받아 변화하는 파도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만 같다.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생트마리드라마레르의 바다 풍경  
(Seascape near Les Saintes-Maries-de-la-Mer), 1888,  
50.5×64.3cm, 반 고흐 미술관

## WIN CLASS 서비스패키지

VIP 고객님들을 위한 IBK만의 품격있는 서비스



경조사



작명



골프백 배송



웨딩카·공항리무진



※ 서비스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오니 서비스의 이용가능 여부 및 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 바랍니다.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